

대학과 생명교육

오 인 탁 /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대학에서의 생명교육은 대학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대학의 전통적 정신과 제도를 현대의 사회·문화적 조건 아래서 재발견하고 소화하여 이 기초 위에 현대의 모든 새로운 과학, 기술, 방법들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강연을 되찾아야 한다. 학문의 공동체이어야 한다. 연구와 교수의 기능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연구와 교수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은 작아야 한다. 행정과 경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1. 들어가는 말

생명의 문제, 생명 교육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겠는가? 생명을 보존하는 교육과 파괴하는 교육을 가름으로써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대학에서 생명 적대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과 파괴하는 교육의 구조를 분석해서, 아니면 대학을 비롯하여 오늘의 교육기관과 사회를 생명 교육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고찰함을 통하여 생명 교육의 문제를 풀어볼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전체가 생명의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고 있다. 생명의 문제는 어떤 특수한 현상이나 영역의 문제가 아니

다. 생명의 문제는 전체적이다. 생명의 문제를 부분이나 특수로 보거나, 분리와 가름의 시각으로 찾아보려고 하거나,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모든 시각은 필연적으로 문제의 장소와 방법을 가르며, 문제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오도한다.

생명은 관념이 아니다. 생명은 사실이다. 생명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다. 나 자신이 생명이다. 뿐만 아니라 생명은 가축과 들짐승이요, 풀과 꽃이요, 산과 강이다. 우리는 생명을 관념적으로 파악하려 해선 안된다. 우리는 생명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간을 포함한 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의 집으

로 있는 지구 자체를 생명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생명 교육의 문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생명 운동이다. 교육은 처음부터 생명을 가꾸는 일이었다. 생명을 잘 보존하고 잘 키우기 위하여 생명을 연구하고 인식하고, 생명이 발달하는 좋은 영양을 찾아내어 제공하며, 생명 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재구성하는 노력이었다. 그래서 교육은 생명 운동이요 생명 주의이다. 교육과 교육학의 역사는 따지고 보면 생명에 대하여 눈뜨고, 생명을 가꾸고 키우며, 생명과 생명의 환경을 탐구하는 걸음걸이였다. 생명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고 심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교육의 개념과 이념에 대한 이해는 끊임없이 쇄신되고 심화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생명을 그리 썩 잘 이해하여 오지 못하였다. 교육의 관점 아래서 보면 우리는 이중적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교육을 해오기보다는 생명을 파괴하는 교육을

해 왔다. 한편으로 생명에 대한 이해의 걸음걸이가 인간 중심, 나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배 관심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그리하여 생명과 자연을 인간을 위하여 탐구하고 응용한다는 것이 오히려 생명과 자연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과 교육학은 오늘날 과학주의적 '발전'의 개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하여 교육과 교육학을 쇄신하려는 노력이 교육과 교육학에서 지혜를 몰아내고 지식을 불러들인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써 교육과 교육학은 오히려 생명소외적이고 생명 파괴적인 실천과 이론이 되었다.

우리 인간은 자연 안에서 살면서도 자연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언제나 그리 썩 잘 이해하여 오지는 못하곤 하였다. 그래서 생명은 외경의 대상이기보다는 탐구의 대상이었다. 막스 쉐러도 철학적 인간학을 탄생시킨 그의 유명한 논문, "우주 안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¹⁾에서 인간이 본질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

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지, 우주와 생명에 대한 외경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므로 시각의 전환이 생명 교육의 출발점이다. 인간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보기를 그치고, 만물 안에서 인간을 보기를 연습하며, 인간의 생명을 모든 다른 생명과 구별하여 절대화하기를 그치고, 생명의 보편 안에서 그 중의 하나로 있는 생명으로 보기를 연습할 때, 그리하여 생명의 바다 안에서 겸손해지기를 연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자연 안에 있는 생명체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연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다. 인간은 자연 안에서 현존하고 실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생태학적 법칙들 아래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포기하거나 파괴하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지 않고는 이 생태학적 법칙을 초월할 수 없다. 인간은 자연의 질서를 삶의 공간으로 가

1) Max Scheler, Die Stellung des Menschen im Kosmos. 1928. Bern: Franke 1966.

지고 있다.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인식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려고 해도, 인간은 어차피 이 질서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려면, 최소한도로 자연의 기초적인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를 피히트는 ‘자연 안에 있는 인간 현존의 한계 가치’²⁾ 라고 하였다. 우리가 이 개념을 수용하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가치의 질서를 찾아서 세워 볼 수 있으며, 생명 교육의 프로그램을 이 가치 질서에 따라서 만들어 볼 수 있다.

2. 생명을 교육하는 대학

전통적으로 대학은 ‘생활 공동체’였다. 대학생들은, 17세기적 표현을 빌리면, 오직 ‘지혜’에만 몰두하기 위하여 수공업자, 상인, 군인, 일상적

시민들과 섞여서 살지 않고 그들끼리 따로 살았다. 그들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Naziräer Gottes)이었다.³⁾ 그들은 세상의 미련한 생활 형식을 지혜로운 생활 형식들로 개혁하려는 자들이었기에, 단순하게 살아야 했고, 합리적으로 살아야 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대학은 이미 생활 공동체였다. 고전 고대에서는 한 사람의 철인이 ‘완전한 대학’(die vollkommene Universität)을 대표하였다.⁴⁾ 이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각각 대학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완전한 대학이었다. 대학은 학교의 학교(Collegium didacticum)이며 아카데미였다. 대학의 과제는 학문의 기초를 밝혀내고, 지혜의 빛을 빛나게 하여, 이 빛으로 인류를 행복하게

하며 세계를 새롭고 유용한 지식들과 기술들로 간단없이 개선하는 것이었다.⁵⁾ 마치 위가 신체의 사지에 피와 힘과 생명을 보내는 생명의 공장과 같은 것처럼, 대학은 다른 모든 학교들에게 교육의 피와 힘과 생명을 보내는 생명의 공장과 같은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대학은 하나(unus)요 전체로 파악되어 왔다. 대학은 과학으로서 하나이다. 대학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서, 무성한 가지와 잎들이 하나의 뿌리로부터 성장한 것처럼, 전체에 관련되고 전체에 관한 완결된 지식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지식으로부터 젊은이들을 지혜의 충만애로, 덕의 충만애로, 그리고 신앙의 충만애로 인도하는 것을 대학의 주업으로 삼았다. 그래서 서구의 중세와 근세에서 대학은 세계 전체를, 인간의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인 성경을

2) "Grenzwerte des humanen Daseins in der Natur". Georg Picht, Die Wertordnung einer humanen Umwelt. In: Lutz Franke(Hrsg.), Wir haben nur eine Erde. Darmstadt 1989, S. 9~18, hier S. 12.

3) Johann A. Comenius, Pampaedia. Lateinischer Text und deutscher übersetzung. Heidelberg: Quelle & Meyer 1965, S. 351.

4) Gian Battista Vico, De Nostri Temporis Studiorum Ratione. Vom Wesen und Weg der geistigen Bildung. Lateinisch— deutsche Ausgabe. Darmstadt 1974, S. 143.

5) Johann A. Comenius, Große Didaktik. Hrsg. von A. Flitner. Stuttgart: Klett— Cotta 1982, S. 208.

연구와 교수의 범서(Pambiblia)로, 위대한 세 권의 책으로 삼았다. 대학은 정신의 투쟁장이다. 대학을 세계와 인간과 성경을 감각과 오성과 신앙으로 연구하는 범지(汎知)의 삼위일체적 조직으로 이해하였던 17, 18세기적 대학의 이해를 20세기 말의 한국의 상황 안에서 재발견하고 재구성하는 일은 의미있다. 대학은 생명을 교육할 수 있기 위하여 전통적 과제와 정신을 보존하고 회복하여야 한다. 대학의 재발견이 시급한 과제이다.

로마는 대학을 세우지 않았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의 문화적 유산을, 특히 법률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래서 언어와 법률이 그리스인들과 같았다. 그들은 법에서 모든 지혜를 보았으므로, 국가의 여러 공직을 수행하면서 법을 학습할 수 있었으므로, 그리고 귀족(Patrizier)을 모든 학문과 지혜의 힘이 그 안에 담겨있는 기관으로 여겼으므로, 대학을 필요로 하지 않았

을 뿐만 아니라 대학을 설립할 흥미와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⁶⁾ 로마의 사례는 우리에게 국가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선 대학이 필요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로마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황제의 등장과 더불어 제국이 되어서야 비로소 법 해석과 법 실천을 위하여 로마, 콘스탄티노플, 베리토스에 대학을 설립하였다.

대학의 주업은 국가를 관리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데에 있지 않다. 대학의 주업은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을 연마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대학은 옛부터 모든 개체적인 것들, 특수한 것들을 그것 자체로 고찰하지 아니하고, 인식의 일원성(Einheit)과 전체성(Allheit)에 대한 깊은 이해 아래서 개별 과학들이 인접 과학들과 가지고 있는 관련성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였다. 대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과 경건의

조화를 통하여 스스로 사유하고 연구하고 발명하며 묘사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서서히 대성하도록 교육하였다.⁷⁾ 대학은 여전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이사야 11:9)하도록 하는 교육의 장소이다.

좋은 학교 교육은 수업과 휴식이 적당하게 나누어지며 학습 시간과 자유 시간과 방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교육이다.⁸⁾ 대학에서의 생명 교육은 ① 수업과 휴식의 조화를 통하여, ② 자유 시간의, 다시 말하면 대학 생활의 낭만을 통하여, ③ 학기와 방학의 조화를 통하여 모색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수업과 휴식의 조화와 대학 생활의 낭만을 통하여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학생 개개인과 전체는 학문과 낭만의 조화를 누리게 된다. 학기와 방학의 구조 아래서 통제된 교육과 자유롭고 자발적인 연학이, 정신의 집중적 훈련과 자

6) Vico, a.a.O., S. 145.

7) Hans Wenke, Das Vermächtnis einer Universität an unsere Zeit. Universität Hamburg 1961, S. 20.

8) J. A. Comenius, Große Didaktik. S. 85.

유로운 모험이, 연구와 여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육 과정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전문화될 대로 전문화된 과학의 세계 안에서 과학 교육이 동시에 생명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보편의 기초 위에서 특수라는 집이 세워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은 Multi-iversity가 아니라 Uni-iversity로 고집스럽게 머물러 있으면서 인간과 세계에 관한 모든 지식, 학문, 과학을 탐구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대학은 가지와 줄기가 무성한 뿌리 깊은 나무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

대학은 생명 교육을 할 수 있기 위하여 학생 선발의 방법과 교수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뛰어난 지성이나 성취가 아니라, 뛰어난 영혼이 대학에 들어와야 한다. 교수의 방법은 쉽고 철저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연의 의도와 질서를 무시하고 나무로 모든 조각품을 다 만들려고 하는 식”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범지적(汎知的)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학생들을 살림꾼으로가 아니라 죽임꾼으로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공 영역의 폐쇄성을 개방성으로 바꿔야 한다. 전통적 대학이 지금까지 교수하여 온 Kolloquium, Disputation, Rigorosum 같은 토론과 교육과 평가의 열려진 형식들을 대학은 보존하고 가꾸어야 한다.

오늘날 대학에서 연구와 교수가 분리되고, 연학과 시험이 분리되었으며, 이러한 분리는 이미 대학을 변질시키고 있다. 오늘날 대학의 제도와 조직은 예술과 학문과 과학과 공학의 연구 및 교수가 국가와 사회의 여러 세력 집단들의 지배 관심과 보존 관심에 의하여 용이하게 동반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생명과 평화를 교육하는 새로운 대학에서는 모든 연구와 교수가 생태학적 평화적 비판 정신에 의하여 동반되도록 재구

성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수의 연구 업적이 명예롭고 학생의 연학의 결과가 명예로울 수 있어야 한다. 학위가 명예로워야 한다. 학위를 주는 주체가 대학이 되어서, 그 학위가 주는 대학과 받는 학생에게 공히 명예가 되어야 한다. 옛날에는 제후와 귀족들이 직접 대학을 시찰하고 방문(Visitation)하였다. 그리하여 대학의 권위와 명예가 온 세계에 우뚝 서도록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의 총장이 정부와 기업을 찾아다니고 있다. 오늘날 대학은 한낱 행정 관리들의 손에 의하여 간섭과 통제를 받고 기업인을 비롯한 큰손들에게 손을 벌리는 처지로 전락하였다. 대학이 대학다워질 수 있도록 국가가는 대학을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동열의 선상으로 올려서 대접하여야 한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정치와 동열 선상에 있다.¹⁰⁾ 교육의 위엄은 정치와 경제보다 우선하며, 생명 교육의 관점에서서는 더더욱 그렇다.

9) J. A. Comenius, a.a.O., S. 205.

10) F. Schleiermacher, Die Pädagogikvorlesungen aus dem Jahre 1826. In: Schleiermacher Ausgewählte Pädagogische Schriften. Hrsg. von Lichtenstein. Paderborn 1964, S. 42.

우리의 대학은 역사와 전통이 없다. 그래서 서구의 대학이 그들의 전통 위에 현대를 쌓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의 대학들은 서구의 대학을 발전의 모델로 삼아서 모방하기에 급급하고, 모방할 때에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모방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서구의 대학에서 전승되어온 정신과 유산을 우리의 대학들은 다시 보고 새롭게 수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국가와 사회가 계속하여 발전의 걸음걸이를 걸을 수 있도록 젊은 시민들을 교육하는 기관이었다. 여기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 문제다. 대학은 사회적 발전이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보존과 발달을 위하여 연구·교수·봉사하는 기관으로, 그리하여 그러한 활동이 자연스럽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탈바꿈되어야 한다.

국가는 대학을 직접적인 사용 가치로 본다. 국가는 대학을 국가를 위하여 과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인력을 양성

하는 제도요 기관으로 본다. 이러한 대학관 아래서 대학은 고통을 당하여 왔으며 신음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학은 교수들 개개인의 직장으로 확인될 뿐, 교수들의 공동적 활동 및 모임과 대화가, 다시 말하면 아카데미즘이 없어졌다.

만약에 대학이 도처에서 그저 경험만을 확보하게 하고 철학과 정신을 거부한다면, 그러한 대학은 공허할 것이다. 만약에 철학과 정신이 모든 과학들이 공유하고 있는 연구 관심과 일치하지 않고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지 않다면, 과학들의 발전을 꾀하는 모든 생각들은 공허할 것이다. 만약에 대학의 교수들이 대학이 역사와 전통을 통하여 가꾸어온 철학과 정신을 폭넓게 공유하고 이에 대한 견해의 일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학의 기능 수행은 가련하고 비참할 것이다.

3. 철학이 있는 수업

수업은 대학의 꽃이다. 오

늘날 수업은 너무나 거칠고 본말이 전도되어서, 개체적이고 부분적인 테마와 지식에 관해서는 최고의 치밀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테마와 지식에 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있는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과학의 세계에서 지혜를 구축하였다. 교수는 학문과 종교와 국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지나고 있어야 하며, 그의 연구와 교수에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일치(Konformitaet)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강의에는 교수의 질과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교수의 강의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가치와 신념이 담겨 있고 지식에 지혜의 옷을 입히는 말(logos)을 통하여 학생들은 영혼의 눈을 뜨기 때문이다.

인간을 생명 문화로 인도하는 '실마리'(Ariadnefaden)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을 우리는 생명 교육을 성공적으로 베풀기 위하여 물어야 하겠다. 여기서는 지식의 양이 문

11) Platon, Politeia. 428b. 플라톤은 '깊은 생각'으로 전체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였다. 그는 국가를 염두에 두고 이 개념을 전개하였으나, 나는 생명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 이 개념을 사용한다.

제가 아니라, 연학의 방법이 문제다. 서양의 대학 교육과 한국의 대학 교육을 비교하면 서, 시설과 재정을 비교하고 연구 업적의 양을 비교하며, 학문과 과학의 질을 비교해선 안 된다. 그것은 본질적인 비교가 아니다. 본질적 비교는 교수 방법과 학습 방법의 비교이다. 문제는 '우리들의 방법이 어느 정도로 그들의 방법보다 우수한가?' 라는 물음에 있다.

모든 연학의 목적은 오직 진리일 뿐이다. 인간이 생산하는 지식, 기술, 학문이 인간과 세계를 구원할지, 아니면 파괴할지는 여전히 개방적 물음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다시 말하면 생명 주의적 관점 아래서 고찰하면, 이러한 물음은 이미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파멸로 이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이, 그것은 자아 중심적 사고와 판단의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초월적 신념과 지혜에 의하여 동반되어서, 시각의 전환을 이루어야 비로소 생명주의가 되어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학은 밸런스의 예술이다.¹²⁾ 안정과 혼돈의 사이에서 발전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예술이다. 동형을 이루는 기대 행동의 안정과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의 소용돌이가 가져오는 불안정 사이에서 발전의 길을 줄타기하는 예술이다. 그러므로 대학에서의 연학은 학생들이 전공학의 백치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전공학을 과학과 철학의 전체 안에서 포괄적으로 연학할 수 있도록, 영역의 넘나들이 자유로워져야 한다. 학생은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수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학점 제도는 대학에서의 연학을 필연적으로 결합기 식

으로 만들고 요식 행위화한다. 그러므로 학생이 탐구의 정열과 자아 실현의 의지에 의하여 수강하도록 대학의 내적 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수는 그가 아는 것을 설명해선 안 된다. 교수는 그 자신의 고유한 인식을, 연구의 행위 자체를 재생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지식을 수집하지만 않고, 인식을 창출하는 이성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보고, 보면서 모방할 수 있어야 한다.¹³⁾ 성공적인 교수가 지녀야 할 자질은, 보이어에 의하면, 가르칠 교재에 정통하는 것, 생각의 놀이에 대한 열정,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견해, 학생들의 삶에 동참하는 성의, 인간으로서의 감수성과 성실성과 따뜻함이다.¹⁴⁾ 성공적인 교수는 뛰어난 교수법의 소유자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이어서, 학생들과 하나 되어 역동적인 학문의 공동체

12) Rolf Huschke-Rhein, Systemisch-ökologische Wissenschaftslehre als Bildungslehre im Atomzeitalter. Köln: Rhein 1993, S. 206.

13) F. Schleiermacher, Gelegentliche Gedanken über Universitäten in deutschem Sinn. Nebst einem Anhang über eine neu zu errichtende. [1808]. In: Gelegentliche Gedanken über Universitäten. Leipzig: Reclam 1990, S. 193.

14) Ernest Boyer, College. The Undergraduate Experience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1978, p. 154.

를 만들어내는 교수이다. 성공적인 교수는 유머가 있고, 이해심이 깊으며, 기대를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어서, 학생들을 선택적인 정신으로 사로잡는 교수이다. 이러한 교수를 대학은 처음부터 선별해서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자체가 하나의 교육의 용광로가 되어서, 이 대학에 교수로 청빙되어 연구하고 교수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자질을 갖추어 가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업의 예술은 철학에 자리잡고 있다. 철학이 있는 교수는 언제나 생동성과 감격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생명 교육과 관련하여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교수의 사람됨이 요청된다. 그는 늘 가르치고 배우며, 학생들 앞에 생동적이고 진실한 인간으로 우뚝 서야 한다.

4. 생명 문화

그리스 문화는 곧 세계 문화였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너는 그리스인이나 아니면

야만인이냐?”고 물었다. 이러한 물음을 오늘의 맥락으로 가져 오면, “너는 살림꾼이나 아니면 죽임꾼이냐?”가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간국가적이고 간문화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문화를 우리 문화 중심으로 고유한 문화와 낯선 문화, 동일성과 상이성으로 가르거나, 여러 문화들의 무조건적 절대적 동등권을 인정하고 각 문화의 가치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원리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이와 반대의 입장을 취하거나 할 수 있다. 우리는 학문을 나 중심으로 탐구함으로써 학문을 세계를 죽이는 도구로 삼든가 그래서 죽임꾼이 되든가, 세계 중심으로 탐구함으로써 세계를 살리는 도구로 삼든가 그래서 살림꾼이 되든가 할 수 있을 뿐이다.

문화는 발의 경작을 의미한다. 키케로는 인간을 *cultura animi*라고 하였다. 인간은 영혼과 정신의 문화라는 말이다. 키케로는 이러한 메타포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강조하려 했음에 틀림없다. 인간의 인본성은 그의 내적 힘들

과 능력들을 받을 경작할 때와 같은 정성으로 가꿀 때에 비로소 제대로 활짝 꽃피어낸다. 문화인으로서의 인간 이해에는 생명 교육의 관점이 이미 들어있다.

우리가 고대의 문명 발생지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고대의 높은 문화들은 모두 농경적 기반 위에서 만개하였다. 이 문화들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 교호 관계 아래서, 이 둘이 재결합(*Rückkoppelung*)을 이루면서 성장하였다. 자연의 경작은, 다시 말하면 자연의 도야는 인간의 도야를 가져왔고, 인간의 도야는 보다 더 발전한 자연의 도야로 이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수천년 동안 지속되어온 이러한 상호 교호적 작용의 흐름을 거꾸로 흘러가도록 만들고 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걸음걸이와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파괴된 자연은 인간의 인본성을 그만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날 자연과 인간은 파괴의 엇물림으로 재결합되고 있다.¹⁵⁾ 그래서 오늘날 더 이상 생명 교육이 그

15) Picht, a.a.O., S.10.

안에서 늘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 문화를 쌓아올릴 질서가 없다. 삶의 외적 표준과 척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그만큼 더 삶의 정신적 도덕적 척도는 추락하고 있다.

인간은 궁핍을 강요당하고 위급한 사태에 처하여져야 비로소 이성을 되찾는 존재이다. 인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여야 정신을 차린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급한 사태의 복잡성과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사이의 차이가 도무지 극복 불가능할 정도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데 있다. 이것이 '인류의 위기'¹⁶⁾이다. 생태학적으로 보면, 보존하는 것은 모두 아름답고 파괴하는 것은 모두 추하다. 이러한 생태학적 지혜로 주장하면, 인간의 창조적인 힘들이 새롭게 도야되고 생명 보존의 능력을 새롭게 발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문화를 창달하게 하는

가치들을 설정할 수 없고 다만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¹⁷⁾ 여기에 생명 문화의 진리가 담겨있다.

5. 지혜의 옷을 벗은 과학의 비참

과학은 다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종교와 철학에 뿌리박을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전체가 연구와 교수와 학습의 생활 공동체이어야 한다. 대학이 늘 솟아나오고, 혼쾌한 분위기가 캠퍼스를 감돌고 있으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와 모험의 정신이 비등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종교와 철학의 깊은 뿌리로부터 과학의 나무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은 대학에 의하여 끊임없이 분리되고 파괴되었다. 외적 세계로부터 내적 세계의 분리, 자연으로부터 인본성의 분리, 생물학으로부터 도덕성의 분리, 물

리학으로부터 문화의 분리는 인간의 생활의 열개를 다시는 하나로 합칠 수 없는 부분들과 조각들로 쪼개어 놓았다. 그리하여 인간이 지혜인으로 현존할 수 있는 기초(Fundament)가 파괴되었다.¹⁸⁾ 학문과 예술은 대학의 역사에서 철학이라는, 다시 말하면 지혜의 벗이라는 단 하나의 학문이 가지고 있는 지성적이고 영성적인 호흡에 의하여 하나로 이해되고 탐구되어 왔었다. 그런데 여럿으로 나누어지고 쪼개어졌다. 그리하여 플라톤의 표현을 빌리면, 의견을 사랑하는 것(Philodoxie)이 학문의 세계를 지배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것(Philosophie)을 대학에서 몰아냈다.¹⁹⁾ 그리하여 생활의 양식과 형식이 학문과 분리되고, 언어도 전문 용어들로 특수화되었다. 옛날에는 학문과 예술이 한 소리(Einklang)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합음(Symphonia)도 안 된다. 과학의 개념이 쇠신되어야

16) Das menschliche Dilemma. Zukunft und lernen. Hrsg. von Aurelio Peccei. Wien: Molden 1979.

17) G. Picht, a.a.O., S. 18.

18) Georg Picht, a.a.O., S. 9.

19) Platon, Politeia. 475e 이하.

한다. 과학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세계를 너무나 다각적으로 탐구하고 있으며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얼굴을 하고 있다. 과학의 현상을 살펴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과학은 기술 공학으로, 현대인의 세계관으로, 지배와 권력의 도구로, 생활 세계와 사회 변동의 추진력으로 드러나고 있다. 베이컨이 “지식은 힘이다”²⁰⁾ 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한 이래로 과학은 인류의 위대한 희망이 되어왔다. 데카르트도 과학적 탐구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을 통하여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요 소유자가 되었다고 하였다.²¹⁾ 과학의 이러한 희망적 성격은 교육학의 성장에도 한 몫을 하였다. 독일어권에서 최초로 교육학 담당 정교수가 된 트랩은 인간의 본성을 바르게 연구하고 그 법칙을 정확하게 응용한다면 인간 개개인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교육학은 보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²²⁾ 이러한 계

몽기의 교육학의 ‘과학적’ ‘약속’이 그 시대에 과학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희망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은 우리들의 생활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고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받은 교육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심도있는 교육을 우리는 일상적 생활 세계에서 받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기능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²³⁾ 우리들이 살고있는 세계의 과학적 문제들의 목록을 열거해 보자. ① 지식과 기술이 ‘전문가’의 손으로 넘어갔다. 일반 시민은 다만 소비자일 뿐이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가져다주는 첨단적 문명의 기제들을 그 원리를 모르는 채로 사용하고 있다. ② 과학적 발전이 결코 보다 좋은 세계로의 발전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직선적 발전의 선이라는 것은 없다. ③ 과학과 생활의 분리, 과학

과 자연의 분리, 과학과 주체적 인간의 분리가 보편적으로 진행되었다. ④ 생활 세계는 도구화되었으며 장치화되었다. ⑤ 과학과 기술 공학은 직업 세계를 세분화, 전문화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동의 생활 공간이 전문적으로 분리되었으며 상실되었다. ⑥ 전문가의 절대 다수는 남성이다. 그리하여 남성적인 것이 과학적인 것이라는 편견이 우리의 세계를 널리 자리잡고 있다.

교육학의 과학화와 전문화가, 다시 말하면 교사 양성의 과학화, 교육 과정의 과학화, 학습 평가의 과학화가, 교육 직업의 전문화가, 교육학과 과학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러한 말들이, 오늘날의 교육과 교육학의 세계에서 지혜를, 생명의 교육을 변두리로 추방해 버렸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들면, 브레진카는 『교육학에서 교육 과학으로』²⁴⁾ 라는 책에서 교육학도 이제는 제대로 된 ‘과학’이 되어야 하

20) Bacon, Novum Organon. 1620.

21) Discours de la methode. 1637.

22) E. Ch. Trapp, Versuch einer Pädagogik. 1780.

23) Rolf Huschke—Rhein, a.a.O., S. 25.

24) W. Brezinka, Von der Pädagogik zur Erziehungs—wissenschaft. Weinheim: Beltz 1971.

며, 교육 실천은 이에 따라서 '기술 공학적'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한국의 중등 교육을 비인간적이고 생명 파괴적인 교육의 극치로 몰아가는, 대학 입시 제도를 비롯한 모든 평가 제도의 '상대적 척도'가, 전국의 수험생을 '앞으로 나란히'시키는 형식이 '절대적 척도'로 바뀌지 않는 한, 생명을 가꾸고 키우는 교육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 공학은 교육의 기술들을 말한다. 기술은 너무나 분명하게 산업에서 말하는 기술의 의미이다. 그러한 기술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말한다. 교육의 기술은 학생들의 행동을 일정한 수단을 통하여 교사들이 피하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과학적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교육 전체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따라서 교육의 과학화는 필연적으로 보편적, 지구적, 포괄적, 일반적 교육의 목적들을 거부하고 특수적, 지역

적, 부분적, 제한적 교육의 목표들을 가치있다고 보고, 이를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의 방법들로 서술한 것만이 과학적이라고 고집하였다.

현대 과학에서 우리는 서로 모순되는 현상의 공존(Ambivalenz)을 본다. 몇 가지 예를 들면 ① 과학과 기술은 자연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은 자연을 또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염시켰으며 파괴하였다. ② 과학은 핵을 연구하여 핵 에너지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과학은 또한 핵폭탄을 제조함으로써 세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도구를 인간에게 제공하였다. ③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노동을 절감시켰다. 그러나 또한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소외시켜 소비와 파괴를 즐기는 이상한 동물로 만들었다. ④ 과학과 연구는 세계를 개관 가능하게 만들었다. 세계는 이제는 더 이상 복잡하고 광대한 미지의 지평이 아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은 또한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전문화됨으로써 세계는 더욱 더 복잡해지고 인식하기 어렵게 되었다. 과학은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데에 관심을 쏟고 이를 즐길 뿐, 과학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가져다 주는 인간 소외적이고 생명 파괴적이며 윤리 파괴적인 현상에 대하여선 애써 침묵하고 있다.

과학은 중립적이고, 가치 자유적인 경과이거나 본질이 아니다. 과학은 이 세계를, 사회와 역사를 힘있게 간섭하고 침해하고 조작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제커는 현대 과학의 문제를 지배 권력형(Macht-förmigkeit)의 개념으로 표현하였다.²⁵⁾ 가치 중립적인 과학은 어디에도 없다. 과학과 권력의, 특히 지배 권력의 연합은 늘 있어왔고, 언제나 가능하다. 과학은 역사의 불가치적 무인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다. 소위 과학의 상아탑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디에도 없다. 대학은 과학의 산실이다. 대학의 역사를 과

25) C. F. von Weizsäcker, Der Garten des Menschlichen. Beiträge zur geschichtlichen Anthropologie. Frankfurt 1982, S. 21.

학의 개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학은 언제나 일정한 과학적 관점 아래서 자연을 보고, 생명의 가치를 일정하게 규정하고 탐구하고 지배하곤 하였다. 과학의 상이탑들은 언제나 어떤 형식으로도 지 과학 외적인 세력들의 지배를 받아 왔다.

오늘날 과학은 한편으로는 주로 이 세계의 권세들을 섬기고 있다. 그들의 복지, 부, 권력, 명예를 높이고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인문·사회 과학은 자연 과학과 기술 공학보다 한국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차별은 과학인 것과 과학 아닌 것을 구별하려는 방법론적 단일 주의에 사로잡힌 폐쇄적 시각을 통하여, 보다 쓸모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을 구별하려는 지배 관심에 사로잡힌 단일 척도적 시각을 통하여 다중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이 모든 과학적 발전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과학의 결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과학은 순수한 학자들보다는 기술 관료들에 의하여, 과학 정신보다는 기업 정신과 자본 주의와 국방 정책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과학 개념의 현주소가 얼마나 생명의 교육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존 로크는 교육적 가치들의 목록으로 이미 제시하였다. 로크에 의하면 교육적으로 가장 큰 가치들은 중요성의 순서에 따라서 첫째가 덕이고, 둘째가 생활의 슬기이며, 셋째가 생활의 형식이고, 넷째가 지식이다.²⁶⁾ 덕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생활의 슬기는 세상사를 처리하는 솜씨를, 생활의 형식은 내적인 자유, 섬세한 생활의 양식, 주체적 정신을 의미하였다. 여기서 지식이 중요도의 순서에서 맨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교육을 통하여 매개하여야 할 가치들의 목록에서 지식이 맨 마지막을 차지

하고 있음은, 모든 지식은 덕을 위하여 있으며, 덕을 섬기고 있는 한에 있어서 유용하고 의미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지의 도야가 지식의 도야에 훨씬 앞서 있다. 바른 감성과 의지가 결합된 인간은 악한 인간일 뿐이어서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한다.

6. 맺는 말

「나의 세계」를 가진 자는 외로워도 ‘고독과 자유’²⁷⁾를 향유하며 외로울 수 있다. 생명에 대한 외경을 잃지 않고 생활하며,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자연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다. 나의 세계는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자연과 사회와 문화는 인간 개개인의 가슴속으로 들어가서 각자의 고유한 자연과 사회와 문화로 재구성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자연이, 사회가, 그리고 문화가 「나의 세계」가 되며, 고향이 되고, 철학이

26) John Locke, Gedankenüber Erziehung. 1692. Stuttgart: Reclam 1970, 134 이하.

27) Wilhelm von Humboldt, Über die innere und äußere Organisation der höheren wissenschaftlichen Anstalten in Berlin. In: Gelegentliche Gedanken über Universitäten. Leipzig: Reclam 1990, S. 274.

되며, 종교가 되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 하나 하나를 자연과 사회와 문화와 연결시켜 주어서, 개개인이 주체적 인격인으로 성장하면서 바람직한 나의 세계를 가진 자들이 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어렸을 때에는 보다 자연과, 좀 커서는 보다 사회와, 그리고 좀더 큰 대학생이 되어서는 보다 문화와 연결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성장세대가 모두 각자의 고유하고 성숙한 「나의 세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대학에서의 생명 교육은 대학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대학의 전통적 정신과 제도를 현대의 사회 문화적 조건 아래서 재발견하고 소화하여 이 기초 위에 현대의 모든 새로운 과학과 기술과 방법들을 수용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대학은 강연을 되찾아야 하겠다. 전통적으로 대학은 강연으로 시작하여 강연으로 끝났다. 대학의 역사와 정신은 강연의 꽃들로 만개되

고 이어져 왔다. 대학의 모든 축제의 중심은 강연이었다. 개학식과 졸업식의 중심도 강연이었다. 교수들이 취임식과 은퇴식에서 행한 강연들은 그대로서 그 분야의 학문을 권위 있게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며, 국가와 사회의 길을 밝혀주는 좌표의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대학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의 축제가 분리된 구태의연한 체질 속에서 강연을 망각하였다.

둘째, 대학은 학문의 공동체이어야 한다. 대학은 처음부터 교수와 학생이 쟁취한 협동적 자율의 공동체였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을 연마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의 사회적 신분, 계층, 계급, 그리고 출신 따위가 묻어지지 않았다. 오로지 학문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수준만이 묻어졌다. 그런데 오늘날 대학은 출세의 도구와 통로가 되었으며, 신분의 공동체로 변질되었다. 대학은 사회와 엮물려서 다중적으로 축보의 제조장 역할을 하고 있다. “누가 유식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지식인가?”가 묻어지며, “그

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는 무엇을 아는가?”가 묻어지는 곳에서 대학은 생명 교육의 기관이 될 수 있다. 대학은 어떤 대학 외적인 척도로 인간을 구별하는 집단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학문을 연구하려는 정열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인 집단(Collegium Scholasticum)으로 거듭나야 한다.

셋째, 대학은 연구와 교수의 기능으로 세로워져야 한다. 대학은 연구와 교수의 기능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은 그래서 처음부터 국가와 교회로부터 자율이 보장된 공동체였다. 대학이 대학 내재적인 기능이 아니라 대 국가적이고 대 사회적인 기능에 의하여 관리되는 곳에서, 대학은 그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고 만다. 대학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정치, 종교,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주업으로 삼아선 안 된다. 그러한 인력 양성의 기능은 다만 대학의 본래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선상에서 자연스럽게 공명과 합창의 모습으로 함께 이루어질 수 있

어야 한다. 오늘날 대학은 지혜롭게 현존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은 해석하고 반성하며, 관조하고 명상하며, 실험하고 분석하며, 구성하고 응용하는 구조로 현존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대학은 작아야 한다. 작다는 말은 단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와 교수의 질을 말하는 것이다. 연구 시설의 용량과 이 시설을 사용하는 교수와 학생의 수, 교수 대 학생의 비율, 강의와 세미나와 실험 및 실습의 크기, 교수의 강의 부담, 이러한 것들이 작아야 한다. 그래야 대학에서의 교육은 다만 지식과 기술을 대량으로 전달하고 학생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곳이 아니라, 보편과 특수이 조화를 이루고, 교수

와 학생이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며, 생명의 문화와 학문이 조화롭게 가꾸어지는 곳이 될 것이다.

다섯째, 대학은 행정과 경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대학은 대학 본연의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으로 자율을 누리며 재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한다. 이 둘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는, 그리고 이것은 사립대학이 절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의 과제가이기도 한데, 대학의 재정을 보장해주되, 결코 이를 담보로 삼아 대학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훔볼트는 대학이 정치와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하여 대학은 국립이어야 한다는 독특한 행정의 철학을 전개하였다. 이

를 오늘의 상황에 서서 말하면, 대학은 정치와 종교와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하여 국가와 재단과 기업으로부터 대학의 재정을 보장받는 법제적 장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

오인탁/송실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교육학 석사, 독일 튀빙겐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장로회신학대학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한국성신문화연구원 교육연구실 교수, 독일 튀빙겐 대학 객원교수, 교육철학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현대교육철학』, 『고대 그리스의 교육사상』 등이 있고, “도덕교육이론에 대한 교육철학적 반성”, “교양교육의 역사와 정신”, “대학의 이념과 책임”의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